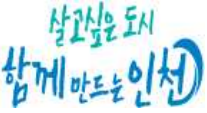
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 | | 보 도 자 료 | |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|
| 배포일자 | | 2021년 3월 4일(목) 총 4매 | | |
| 담당 부서 | 대변인실 | 담당자 | • 공보지원협력관 신상학 ☎440-3318 | |
| |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| 담당자 | • 매립지조성팀장 최명환 ☎440-8281 • 담당자 현승주 ☎440-8282 | |
| 사진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
| 보 도 시 점 | | 11:0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
박남춘 시장, “인천 에코랜드 조성, 영흥 재도약 기회로 삼을 것”

- 박 시장, 4일 시청서 인천에코랜드 자체매립지 발표 -

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4일 옹진군 영흥도를 인천 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확정 발표하며, “영흥을 환경특별시 인천의 중심이자 친환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특별한 섬으로 만들 것” 이라고 강조했다.

○ 인천 에코랜드(친환경 자체매립지) 조성을 영흥의 재도약 기회로 삼아 ‘친환경 특별섬’ 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.

■ 박 시장은 이날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친환경 자체매립지 (가칭)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(안)’ 을 발표했다.

○ 조성 계획에는 후보지 확정과 더불어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‘영흥 제2대교 건설’, ‘영흥 종합개발계획’ 수립, 영흥 주민의

‘삶의 질’ 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지원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.

○ 박 시장은 “영흥 제2대교를 건설해 인천 내륙에서 영흥까지 1시간 걸리던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” 며 “특히 주민 여러분과 함께 영흥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사람과 재화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풍요의 땅으로 만들겠다” 고 약속했다.

○ 이와 관련, 인천시는 먼저 ‘영흥 제2대교’ 를 건설하기로 했다. 대부분 (구봉도 일원)에서 영흥도(십리포 일원)까지 약 5km ~ 6km로 구간을 2차로로 건설하면 인천에서 영흥도까지 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. 영흥지역을 수도권 관광랜드마크 지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흥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2021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.

기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.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,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.

○ 이번 발표(안)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특별위원회’ 권고내용 9개를 반영(8개 수용, 1개 부분 수용) 것이다. 특위의 권고 내용은 ▲영흥도와 선감도에 대한 입지 타당성 검토 ▲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제시 ▲기타 제안내용 등이다. 이를 토대로 최소한의 소각잔재와 불연성 잔재물만을 매립하는 친환경 자체매립시설 조성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.

○ 박 시장은 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영흥이 선정된 데 대해 “지난 달

24일 특위에서는 영흥도와 선갑도에 대해 입지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최종 권고했고, 그 제안에 따라 세심하고 꼼꼼하게 두 곳을 비교 검토하고 관계기관 의견도 수렴했다”며 “그 결과 선갑도보다는 영흥도가 후보지로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”고 전했다.

- 선갑도가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선 “환경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으로 각종 법적절차 진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”며 “또 해상 운송에 따른 매립장 운영 및 조성 비용이 매우 커 자체매립지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”고 밝혔다.

■ 박 시장은 ‘인천 에코랜드’를 국내 선진시설들의 장점만을 모아 만드는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임을 재차 강조했다.

- 박 시장은 “인천 에코랜드는 현재 친환경 매립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양주·청주매립지의 장점만을 모아 만드는 시설”이라며 “내 집 앞에 두어도, 내 아이 곁에 두어도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”고 역설했다.

- 에코랜드에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된 소각재를 재활용 후 남은 잔재물 및 기타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할 계획이다. 특히 기존의 매립 시설과 달리 지하 30~40m 깊이에 소각재를 매립하고, 상부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하여 오염물질과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조성할 예정이다.

- 운송차량은 완전 밀폐형 차량을 이용하고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운행하며, 평일 운송시간도 주민들과 협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.

- 박 시장은 또 영흥을 ‘친환경 특별섬’으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화력발전소로 인해 오염된 영흥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.

- 박 시장은 “오랜 세월 화력발전소에서 날아온 석탄재는 배추밭을 뒤덮고, 영흥주민들이 자유롭게 숨 쉴 권리마저 위협했다”며 “우선 야적장에 돔을 씌워 석탄분진이 날리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영흥화력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LNG전환 속도를 높여 영흥의 맑은 하늘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드리겠다”고 말했다.

- 한편 인천시는 이날 발표한 ‘친환경 자체매립지 (가칭)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(안)’에 대하여 영흥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11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,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(only.webhard.co.kr)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.